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9째주 (2월 28일)

정교회 주보



성 코논 수도자

탕자 주일

- 성 바실리오스 고백자, 성 끼라나 순교자
제 5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5조 부활찬양송 / 82, A 215
•주일 입당송 / 14, A 42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성당 찬양송
•탕자 주일 시기송 / 220, B 270
•사도경 : I고린토 6:12~20 / 봉독서 418
•복음경 : 루가 15:11~32 / 133, B 8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훈 성인들

성 코논 수도자

코논 성인의 부모님은 네스토르와 마그다였습니다. 성인의 아버지인 네스토르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인은 부모님의 설득으로 참한 배우자인 안나를 맞이하고, 그 후 꿈에서 미카엘 대천사로부터 동정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동정의 삶으로 하느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악마를 굴복시키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부모님과 함께 도시 전체가 그

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성인이 믿음 때문에 붙잡혔을 때 온 백성은 왕 앞에 엎드리고 손의 출혈로 피범벅이 된 성인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처럼 성인에 대한 백성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만약 왕이 한 밤중에 도둑처럼 도망가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왕을 잡아서 처단하였을 것입니다. 성인의 선한 배우자가 안식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련하는 삶을 살면서 덕을 실천하였고 평화롭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1세기) 우리 교회에서는 3월 5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

예년처럼 올해도 2월 17일에 1900년 2월 1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찬예배를 거행한 기념일을 축일로 지냅니다. 한국정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한 역사적인 이날은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빛을 갚아야하는 날입니다.

1) 첫 번째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빛을 갚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물인 정교회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영광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구원의 정교의 길을 가르쳐주신, 하느님의 성사들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몸과 피로 영적으로 양식을 취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러시아와 그리스의 선교사들, 또한 지나온 어려운 시기에 정교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일을 한 한국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위한 기억과 기도로 빛을 갚아야합니다.

3) 세 번째로, 정교인들이 얼마나 행동으로 정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 삶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냈는지에 대해 진정한 자기성찰로 빛을 갚아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12: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에게 질문합시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빛을 발합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사가는 우리

들에게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빛의 자녀로” 항상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중대히 여겨야 합니다.

4) 네 번째로, 결심으로 빛을 갚아야합니다. ⑦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⑨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만약 자기성찰을 올바르게 한다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내 집처럼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찾게 될 것입니다.

정교회라는 하느님의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풍랑이 이는, 어떤 때는 고요한 삶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방주는 승객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인 하늘의 왕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키를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머뭅시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골로사이2:3)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정교회의 방주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15)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결론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인 것이 되게 하되, 관습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합시다. 계획을 가지고 하되,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 하는 것은 되지 않게 합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기쁨과 평화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참되며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신비스러우면서도 확실한 방식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유혹과 어려움, 불행, 위험, 죽음과 상실은 그들을 참된 기도의 길로 이끄는데 자극제가 되어왔습니다. 곧, 이런 어려움들은 더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를 하도록 (마침내)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온 마음이거나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기도에 더 일찍이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기술은 하느님에 의해 기도하는 사람이 배우게 됩니다. 통회(痛悔)하는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 없이 습관적이고 관례에 의해 하는 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 살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하느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기도의 순수한 달콤함을 맛볼수 있게 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의 기도만이 순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온화하든 냉담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말 한 단어일지라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전부를 하느님은 들으십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할 때 주위의 여러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사랑하시며, 특별히 아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영혼토요일

3월 6일 토요일은 영혼 토요일입니다. 성찬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념하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꼴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뜨리오디온 기간을 잘 보냅시다

뜨리오디온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잘 보내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한 정교회출판사에서 출간한 “대사순절”, “성에프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대사순절과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영적 독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의미있게 대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2월 21일 주일 슬라브 교인 다비드 차 유아가 로만 신부님의 집전으로 이루어진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

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 단체모임을 합니다. 매주일 오후 1시에는 신데즈모스, 오후 2시에는 부인회, 오후 3시에는 예비신자 모임을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주일학교 모임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신자분들은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 단체모임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성회, 여성회 신자분들은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3월 6일(토)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